

2017, 라오스 10월 활동 보고

위양사마이_조다현



이 달은 생일을 맞은 팀원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깜짝 방문해 생일축하를 해주며 팀원들의 얼굴을 지난 달 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 마을의 친구들도 새롭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생활을 엿보면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정했던 팀규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잘 지켜졌지만 변화를 줘야할 규칙들도 있었기에 비자트립 때, 이부분에 대해 팀원간 의견을 나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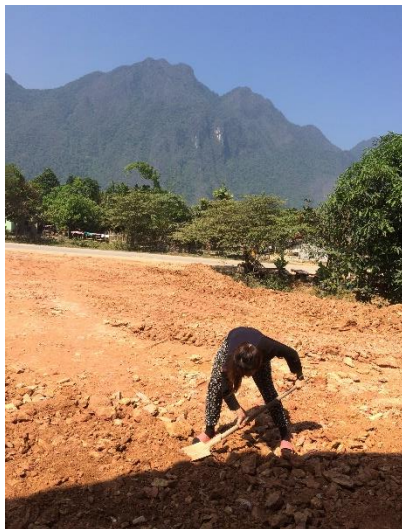
땀감을 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산을 뒀습니다. 산을 오르는 중간지점에 아주 좁은 길이 있어 수레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땀감을 지고 여러차례 길을 왕복해야만 하는 강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선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을 시작했지만, 금세 무더워지고 땀이 쏟아졌습니다. 옮겨야 할 양이 많았는데, 체력이 부족해 다른 이들이 감당한 만큼의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지만 약한 내게 속이 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언니와 딸랏(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가격 흥정이나 인심 좋은 아주머니께서 주시는 간식 덕분에 장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서로에게 어울리는 옷도 골라 선물해주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국수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직접 재료를 고르고 맛을 내면서 요리가 얼마나 고생스런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포함해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 앞 큰 물웅덩이를 매립하고 삽으로 땅을 정돈했습니다. 다음날 한쪽 어깨가 많이 쉬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잘 맞고 잘 하는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난 달에 이어, 매일 센터에서 영어와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농번기라 벼 수확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학생들이 지쳤을 때는 영화를 보거나 과자파티를 즐기며 기분을 전환시켰습니다.

소감: 우기가 끝난 후 날이 꽤 추워졌습니다. 날이 춥고 긴장도 풀린 탓인지 지난 달 보다 늦게 일어나게 된 날이 많아졌습니다. 종종 따뜻한 옷을 챙겨오지 않은 제가 입기도 했지만, 아직은 버틸 만 합니다. 몸이 지쳐 기절할 정도로 아픈 날도 있었는데, 이때 체력관리의 필요성과 건강의 소중함을 정말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민폐는 끼치지 않도록 해야지 다짐했건만 벌써 민폐 가득입니다. 하우스워킹은 다 몸을 써야 하는 일인데 다음 달부터는 운동을 해서 체력을 늘려야겠습니다.

이 달은 제가 여자 이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게 다가왔던 일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샹브샤브 집에 가서 냄을 재료를 고를 때나 잔에 술을 따를 때, 여성 흡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를 둘러싼 여러 남성들의 언뜻 보면 압박과 같은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배드민턴 라켓을 빌려줄 때 등에서 다소 불평등하게 비취질 수 있는 언행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보통은 그 불편함을 웃음으로 넘겼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은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하고 현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만, 나누는 얘기가 서로의 문화를 건드리거나 혹은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까 걱정이라, 토픽을 꺼내기 전에 여러 부분에 대해 다양한 생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라온아띠-라오스 방비영 10월 보고서, 푸딩댄편_이인호

1. 홈스테이에서의 삶

이제 홈스테이의 삶에 완전히 적응하여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는 등 이 집에 완전한 가족이 된 느낌이 든다. 불안했던 첫 달과는 반대로 라오스 언어도 많이 배워서 어머니와 소통하는 하는 시간이 늘고있다. 대화를 나누면서 라오스어를 더욱 알려주려는 어머니의 노력에 정말로 감사드린다.

1) 집 짓기: 아직 공사가 한창중인 우리 집 새 주방 화장실 짓기, 함께 거들다.



현재 새로 짓는 주방과 화장실... 나도 같이 노다가중이다!

2) 아버지 용돈벌이?: 라오스 아버지와 나 그리고 아들과 함께 대나무를 옮기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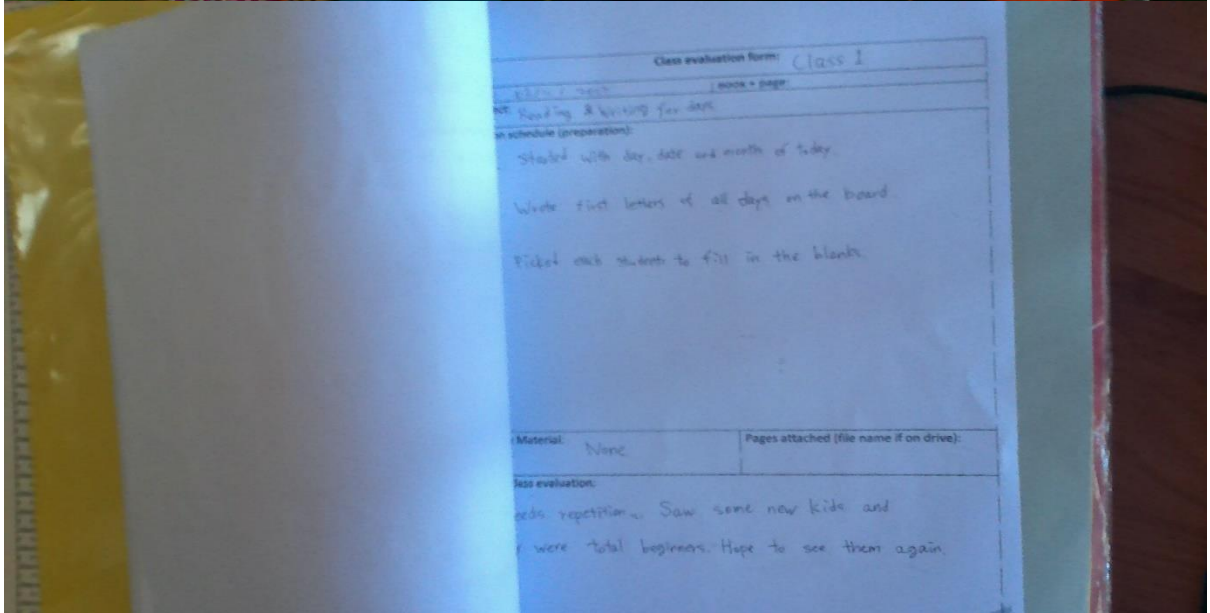
참 쉽게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무겁다....

이 대나무 묶음은 팔려고 자르셨다고 한다. 아버지 저 맛있는 것 좀 사주시면 안되나요..?

2. Youth Center 활동

1) English Class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점점 나에게 친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외국인 봉사자들과 번갈아 가면서 함께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목요일, 금요일에는 수업을 들으러 오는 아이들이 유난히 적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 유럽 선생들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지만, ㅎㅎ 잘 모르겠다.



매 수업 후 그날 그날 구체적인 수업진행 방법이나 준비과정 그리고 수업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유럽 봉사자들도 함께 작성하여 서로서로 공유하고 참고하며 가르친다.

2) Kevin College

이번 달부터는 특별히 현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도 하고 있다. 주 1회이지만 현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이라는 점이 가르침에 있어서도 더욱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성인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이따금씩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조금 후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 수업들은 다 개인들이 많은 돈을 내고 받는 수업이라고 한다(금수저들입니다)

느낀 점: 아직까지는 현지에 적응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 모두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홈스테이에서도 반갑게 받아주어서 매우 기쁘다. 아직도 찬물샤워는 익숙해지지 않고 있지만, 귀국하기 전에는 꼭 익숙해지리라 믿는다. 나를 한명의 가족구성원으로 받아주면서 요구하는 것이나 시키는 일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감사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션을 수행하려고 한다. 처음에 들었던 걱정과는 달리 라오스어도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느낀다. 아직도 나에게 영어만 쓰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영어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라 생각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 경청해주고 이야기한다. 집에서 여동생이랑 어머니에게 라오스어를 마구 남발하면서 틀린것을 수정받기도 하면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낀 한달이었다.

나몬느아 10월 활동 보고서_강재영



반나 생일을 맞이하여 반나 집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왔다. 오랜만의 삽질과 곡괭이로 힘들었지만 밥값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

10월은 9월과 마찬가지로 나몬느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다. 9월과 달리 10월 달에는 2주간 가족들과 함께 벼 수확과 로버트리 팜에서 로버트리 채취를 했고, 태봉고등학교 학생들과 센터 정리 및 건물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라오스 국가기념일을 맞이하여 나몬느아 초등학교에서 라오스 군인들과 축구경기 후 다 같이 맥주를 마셨다. 10월에 나몬느아에서 활동한 것을 사진을 찍어 공유 해야 하지만 일일이 남기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